

2월 2주

2

River & Culture

# 하천의 생태적 지표종 수달



차인환 | 서남해안센터  
(rescue011@hanmail.net)



수달은 예전에는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동물이었지만 지금은 자연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친숙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TV화면을 통해서이다. 실제 수달을 관찰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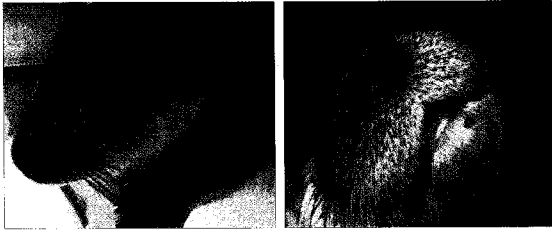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달은 Eurasian otter(*Lutra lutra*)

1종으로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하여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IUCN Red List 보호등급 I의 Vulnerable종으로 고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종이다.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식육목(食肉目;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 족제비과 수달속에 속하는 종으로 족제비과의 대부분의 특징처럼 양어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물고기를 죽여 버리기 때문에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원성을 받고 있는 동물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13종이 분포하고 있다.

수달은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대략 100~130cm이며, 몸무게는 5.8~10kg 정도이다. 일부 개체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크고 무거운 수달이 관찰되기도 한다. 외형적인 특징을 살펴 보면 머리 부분은 짧고 편평하고 얼굴 부분에는 수염이 길게 나 있어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사용한다. 몸은 길고 물속에 적응한 형태로 되었으며 물갈퀴는 발가락 사이에 있어서 헤엄치기 용이한 형태이다. 수달의 털은 길고 굵은 모와 짧고 가는 모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속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물속에서 코와 귀를 막아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지만 어린 수달의 경우 아직 잠수

나 수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수달이 물에 산다고 물속에 계속 두면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수달을 비롯해서 해달이나, 키가 사람보다 커서 붙여진 큰수달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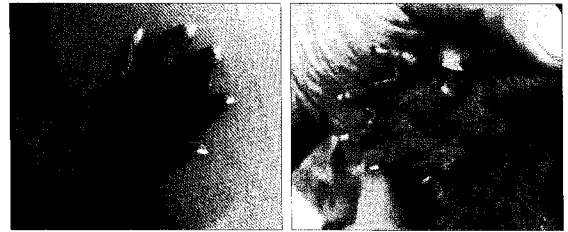
수달은 물이라는 수환경에 적응한 포유동물이지만 강이나 하천과 같은 담수뿐만이 아니라 해안가나 섬에서도 관찰된다. 물론 짚물을 먹고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달이 서식하는 곳이나 배설물 등의 흔적이 관찰되는 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더라도 담수가 흘러내리는 곳이거나 근처에 담수가 있는 곳이다.

수달의 분포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이나 하천, 그리고 남해안의 연안과 섬들에서 수달의 흔적들이 많이 관찰된다. 서해안쪽의 하천에서도 관찰이 되기는 하지만 갯벌과 서해안 특유의 탁도가 높은 물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서식 흔적이 많이 관찰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더 많은 흔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달을 직접 목격하기는 쉽지 않지만 흔적을 알고 있거나 습성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고 공부한다면 흔적을 보았을 때 쉽게 수달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기 위한 것 중에서 가장 쉽게 관찰이 되는 것은 발자국과 배설물일 것이다. 수달도 마찬가지로 이다. 수달의 발자국의 형태와 배설물의 특징을 찾아내면 일단 그 지역에 수달이 왔다거나 서식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족제비과의 발자국들은 발가락이 5개가 찍히기 때문에 해안가나 하천 주변에서 사진과 같은 발가락이 5개가 찍힌 발자국들이 보이면 수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모래에 찍히느냐? 아니면 갯벌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찍힌 모양이 다르거나 형태가 남아있는 시간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자국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찍혀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정확한 형태로 구분이 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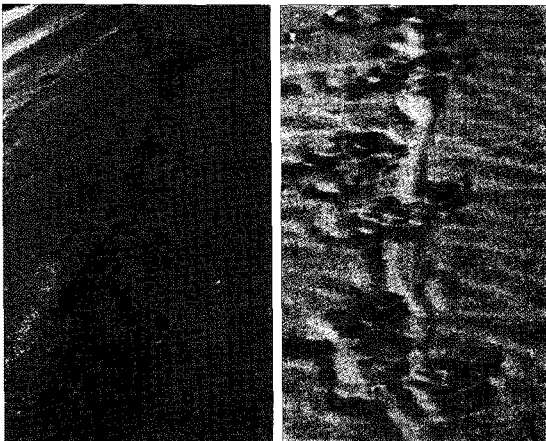
<표 1> 세계에서 관찰되는 수달(한국수달보호협회 보고서 참고)

| Scientific Name               | Common Name                | Korean Name   | Alisma plan                 |
|-------------------------------|----------------------------|---------------|-----------------------------|
| <i>Enhydra lutris</i>         | Sea otter                  | 해달            | North America, Asia         |
| <i>Lontra canadensis</i>      | North American river otter | 캐나다 수달        | North America               |
| <i>Lontra longicaudis</i>     | Neotropical otter          | 긴꼬리 수달        | Lartin America              |
| <i>Lontra provocax</i>        | Southern river otter       | 남미 수달         | Lartin America              |
| <i>Lontra felina</i>          | Marine otter               | 남미바다 수달       | Lartin America              |
| <i>Pteronura brasiliensis</i> | Giant otter                | 큰수달           | Lartin America              |
| <i>Aonyx capensis</i>         | Cape clawless otter        | 아프리카민발톱수달     | Africa                      |
| <i>Aonyx congica</i>          | Congo clawless otter       | 콩고민발톱수달       | Africa                      |
| <i>Lutra maculicollis</i>     | Spotted-necked otter       | 얼룩목수달         | Africa                      |
| <b><i>Lutra lutra</i></b>     | <b>Eurasian otter</b>      | <b>유라시안수달</b> | <b>Africa, Asia, Europe</b> |
| <i>Lutra perspicillata</i>    | Smooth otter               | 비단수달          | Asia                        |
| <i>Lutra sumatrana</i>        | Hairy-nosed otter          | 수미트라수달        | Asia                        |
| <i>Amblonyx cinereus</i>      | Small-clawed otter         | 작은발톱수달        | Asia                        |

운 발자국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노력해야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보이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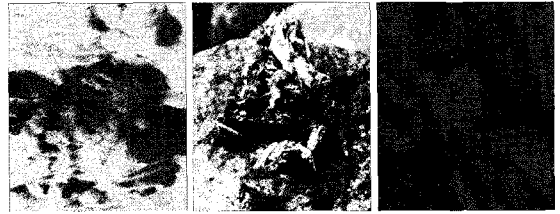


운이 좋다면 바닷가에서 방금 지나간 수달의 흔적을 본다면, 어제 저녁이나 새벽에 흔적이 있던 것을 지나간 것이다. 항상 수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또는 자주 본다면 언제 수달이 그곳을 다녀가거나 오는지 알 수 있다.



수달의 흔적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수달의 배설물이다. 족제비과의 동물들은 배설물을 바위나 나무 위에 흔적으로 남겨놓는데 수달도 습성이 비슷하다. 주로 바위에 남기지만 가끔 모래밭에서는 모래 속에 남기고 모래로 덮는다. 수달의 배설물에서는 비릿한 생선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냄새가 나면서 내용물에 뼈나 생선가시 같은 것이 섞여있다면 수달의 배설물이 거의 확실하다. 수달은 주로 어류를 먹지만 조사된 자료들을 보면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패류(복족류 등)처럼 거의 대부분을 먹는다. 그러나 흔적을 보면 배설물에 가시가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주로 어류를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천에

변화가 생겨서 어류에 문제가 생기면 먹이문제로 수달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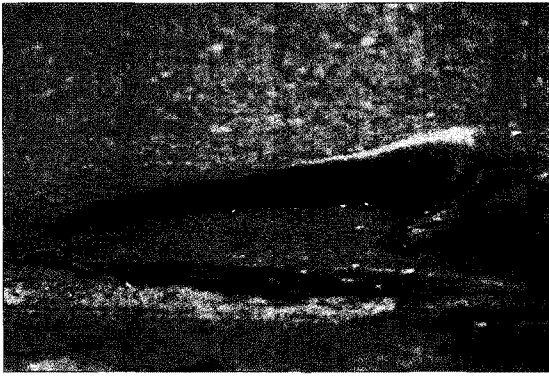


수달이 살아가는 수환경 중에서도 하천은 특히 수달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댐이 들어서면 수달의 이동로가 없어지면서 고립된 개체군이 생기게 되고, 하천이나 수로가 직선화하는 공사를 하면 수달의 서식공간도 함께 없어지게 되므로 수달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매립이나 준설들도 서식지 문제와 함께 먹이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준설시에 발생하는 오타수에 의해서 어류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달은 발톱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굴을 파지 못하고 돌틈이나 파인 공간, 또는 보 밑에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 등을 잡자리나 번식굴로 이용한다. 이런 수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천 공사시 이런 공간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없애버리기 쉽다.

하천에 대한 공사 외에도 수달이 많이 죽는 곳은 도로변이다. 흔히 말하는 로드킬(Roadkill)이다. 하나의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무방비에 놓인 곳이 많다. 특히 하천변에 인접한 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결국 하천과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수달은 수환경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위치하는 상위포식자이다. 수달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환경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수달이 그 지역에서 관찰이 되는 것은 수환경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치수안전을 위한 방재공사일지라도 하천 생물의 다양성과 하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배려하는



방식의 공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사가 되면서 이미

오래전에 수달이 없어져서 우리나라에 수달이 많은 것을 부러워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하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계획 없이 이용하려 한다면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야할 지도 모른다.

수달이라는 단순한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태계와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수달과 같은 야생동물을 동물원이나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만 주변을 둘러보고 가장 아름다운 하천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

